

제5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0월 25일)

## 고려시대의 불교 조각

최선주 | 301호 불교조각실 | 18:00~18:30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불교가 널리 신앙되었다. 수도인 개경에는 십대사찰이 건립되었으며, 통일신라 말부터 지방 호족 세력이 흥기하면서 지방에서도 많은 불사佛事가 이뤄졌다. 이는 기존에 경주를 중심으로 부흥했던 불교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불교문화가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새로운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 중 하나는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과 같은 석조 대불石造大佛이 다수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은 936년 후백제를 멸망시킨 최후의 격전지였던 연산 천호산에 개태사를 창건하고 직접 발원문을 지었으며, 투박하고 중량감 있는 석조삼존상을 봉안하였는데, 이후 고려에서 석조 대불이 조성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의 석조 대불은 그 대다수가 개경이 아닌 지방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조성 주체를 지방호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일신라시대의 조각양식에 비해 섬세함이 부족한 토속적인 상으로서 격이 낮은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고려 전기 석조대불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과 제작기법이나 양식에서 차이를 보일 뿐, 사회·종교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독특한 시대적 조형미를 지닌 상이다.

한편 고려 전기에는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석불과 함께 철불이 제작



그림 1.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10세기, 보물 제218호

되었다.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철불과 같이 석굴암 본존불 이후 유행했던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는 불상이 철불로 제작되었으며, 강원도와 충청도 지역에서도 지역적 특징을 반영한 철불이 조성되었다.

고려 전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불상이 조성되는데,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같은 독특한 보살상이 그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북송과 남송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섬세하고 화려하면서 귀족적인 불상 양식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3세기 말부터는 고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원나라의 영향이 불상 양식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원나라는 티베트의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이는 고려 후기 불상에도 영향을 미쳐, 이 시기 고려에서는 화려한 장식의 높은 보관, 삼각형의 얼굴, 커다란 원형 귀걸이, 온몸을 감싼 영락장식과 앙련 대좌를 갖춘 금동불상이 제작되었다.



그림 2.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고려 10세기, 국보 제124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제5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0월 25일)

##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 (5)

### - 그린볼트 ‘보석의 방’

이원진 |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18:00~18:30

18세기 바로크 왕실에서 보석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Louis XIV, 재위 1643~1715)가 외투와 조끼에 다이아몬드 단추를 달기 시작하면서, 보석은 왕의 의복에 빼놓을 수 없는 장식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또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로즈 컷 다이아몬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마노, 홍옥수 등 아홉 종류의 보석 장식 세트를 제작했으며, 1719년부터 보석 소장품 목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보석의 방’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보석 컬렉션을 전시하기 위해 1727년에서 1729년 사이에 만든 방으로, 그린볼트 여덟 개의 방 중에서도 가장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아끼는 보석뿐만 아니라, 방 내부를 화려하고 장엄하게 연출함으로써, 보석의 방이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방 가운데에 거울 기둥을 놓고, 기둥 사면에 금을 입힌 자신의 모노그램 “AR(Augustus Rex, 아우구스투스 왕)”을 배치하면서 그 주위를 식물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거울에는 황금양모기사단 훈장, 흰독수리 훈장 등 아우구스투스가 수여받거나 제정한 기사단 훈장의 상징을 유리 상감기법으로 새겼습니다. 방의 양쪽 문 위에는 아우구스투스의 또 다른 두 모노그램 “FAR(Friedrich August Rex,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왕)”과 “CFA(Churfürst Friedrich August,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가 마주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석의 방은 아우구스투스와 관련된 각종 상징으로 채워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석 컬렉션은 보석의 방에 위치한 네 개의 매우 큰 불박이 전시장 안에 진열되었습니다. 1733년에 기록된 보석의 방 소장품 목록을 통해 당시 전시된 보석 품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의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체되었지만, 당시 전시되었던 대부분의 보석은 이후에 추가된 보석들과 함께 계속 그린볼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황금양모기사단 훈장>과 같이 1733년 목록에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소장품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석의 방에 진열되어 있는 예도 있습니다.



보석의 방은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장식 거울의 잔해 정도만 보존되었습니다. 과거의 흑백사진과 한 점의 채색 구아슈 작품을 가지고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방 전체를 복원하였습니다(그림 1). 복원된 보물의 방은 많은 예술가와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합동 작품이었습니다. 보물의 방이 가진 놀라운 시각적 아름다움을 이번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 -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의 확대 사진 기술을 이용해 재현한 전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2006년 재개관한 구 그린볼트박물관 ‘보석의 방’ 전경

제5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0월 25일)

## 일본의 사계절 -春·夏·秋·冬-

정미연 | 311호 일본실 | 19:00~19:30

일본실은 9월 12일부터 「일본의 사계절 - 春·夏·秋·冬」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상설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시품은 병풍 3점, 족자 2점, 판화(우키요에) 8점, 칠공예품(마키에) 43점 그리고 노가면 3점으로 총 59점이다.

이번 정기교체는 일본의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16년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계화조도병풍 四季花鳥圖屏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을 두 폭의 병풍 화면에 표현한 작품이다. 봄의 벚꽃과 매화, 여름의 붓꽃, 가을의 단풍과 국화 그리고 겨울의 눈 덮인 소나무와 백매화로 표현한 사계절의 흐름은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즐겼던 일본인들의 감수성을 보여준다.

한편 장마, 벼의 수확, 대설大雪 등 계절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한 우키요에(浮世繪) 작품인 <도카이도(東海道) 53차次> 여덟 점도 선보인다. 에도시대 일본인들이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 모습을 서정적인 풍경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성큼 다가온 가을을 주제로 한 일본근대회화인 <미즈오 마을의 가을>과 <금강산의 가을>도 만나볼 수 있다.

2016년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한 노가면(能面) 3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노가면은 일본의 전통예능인 노(能)를 공연할 때 사용하는 가면이다. 노가면은 기본적인 종류만 6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중 온나멘(女面), 오니멘(鬼面), 조멘(尉面)에 속하는 3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에도시대 귀족과 무사, 부유한 상인집안의 여성이 시집갈 때 지참했던 화장도구도 소개한다. 금가루로 표면을 장식하는 마키에(蒔繪)라는 칠기 기법으로 장식한 경가鏡架와 빗, 화장품을 담았던 크고 작은 용기가 선보이는데, 이를 통해 에도시대 활발히 제작된 화려한 여성 혼례도구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사계화조도병풍>, 각 153×356cm, 에도시대 18세기, 종이에 채색, 구10029



제563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17년 10월 25일)

## 특별전 <쇠 · 철 · 강 - 철의 문화사> (4)

### - 철, 권력을 낳다

김상민 | 기획전시실 2실 | 19:00~19:30

특별전 1부는 철의 세계사라는 관점에서 자연 속 철을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하게 발전하는 여러 지역의 철 문화를 살펴보고, 강철의 등장으로 달라지는 사회현상에 주목하였다. 특별전 2~3부에서는 한국사 속의 철 문화를 살핀다. 우리나라의 철 문화는 고대부터 중근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며, 그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철은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한 후 점점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특별전 2부 “철, 권력을 낳다”에서는 철기의 등장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에서 생산력의 증가에 주목한다.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철에 대한 지배자의 소유욕과 독점욕이 커져, 철의 소유가 곧 권력의 상징이 된다. 철의 소유와 독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라 황남대총에 부장된 다량의 철기이다. 특히 단야 소재이나 화폐인 덩이쇠를 다량으로 부장하는 것은 철이 가진 부富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철제 도검刀劍을 가진 권력의 상징성이 고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된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전쟁을 만들어낸다. 철이 만들어낸 생산력 증가가 ‘성장’을 의미한다면, 권력이 만들어낸 전쟁은 ‘파괴’를 의미한다. 이처럼 철로 인해 나타나는 모순된 결과는 철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하기 시작한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번 큐레이터와 대화에서는 우리 역사 속 철이 만들어낸 「성장」과 「파괴」라는 이중성, 전쟁이 만들어낸 「모순矛盾」을 생각해 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그림 1. 황남대총의 덩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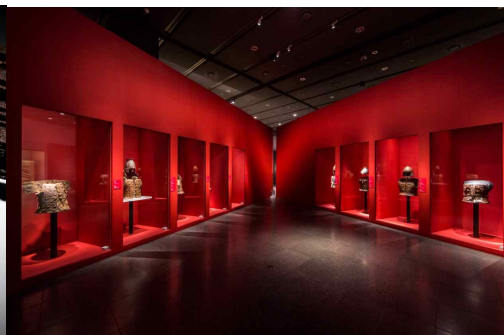


그림 2. 전쟁의 모순(특별전 2실)